

## 2025년 창조 시기 강론 자료 1

### 우리 모두 '평화와 희망'의 씨앗이 됩시다!

“마침내 하늘에서 영이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리고 광야에 공정이 자리 잡고 과수원에 정의가 머무르리라.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그러면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에, 안전한 거주지와 걱정 없는 안식처에 살게 되리라”(이사 32,15-18). 레오 14세 교황님께서서는 이사야 예언자의 이 말씀을 제시하며 '평화와 희망의 씨앗'이라는 주제로 올해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기념하는 '창조시기'를 보내도록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기후 위기의 현실 앞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전한 약속의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영이 임할 때 불모의 땅이 생명의 정원으로 변하고, 공허한 땅에 정의가 심어지며, 정의의 열매로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회복의 희망을 전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정의가 자리 잡으면, 평화와 희망의 열매가 맺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떤 땅 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회복보다 위기와 황폐함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 재해, 숲의 파괴, 해양 오염, 그리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끝없는 착취는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야는 오늘날 인간의 마음과 사회 구조, 그리고 자연 생태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곧 환경 문제는 단순한 기술이나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가난한 이들로 부터 시작하여 약한 존재들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경 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는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기후 변화와 생태 파괴의 고통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겪습니다”(「찬미받으소서」 48항). 바로 이 결과는 인간 스스로의 자연에 대한 정의의 부재이며,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맡기신 창조세계는 우리가 일구고, 돌보아야 할 공동의 집입니다(창세 2,15 참조). 성경은

인간에게 피조물을 지배하고 파괴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뜻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서로 책임지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생명의 근본인 자연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행동해야 합니다. 지구가 광야를 닳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우리 모두는 생태적 회개를 통해 평화와 희망을 싹을 틔울 줄 아는 의미 있는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절제, 연대, 그리고 행동 하나하나가 정의와 평화의 씨앗이 됩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이 먼저 어떻게 평화와 희망의 씨앗이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내 안에 어떤 씨앗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 안에서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내 삶의 방식은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가난한 이들과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가? 참으로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정원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 주며, 공동의 집을 가꾸는 소명에 응답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순간부터 평화와 희망의 씨앗심기를 당장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그려주는 미래는 단지 이상적인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약속이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해야 할 현실의 목표입니다. 본당 공동체가 생태적 영성과 실천을 중심으로 변화되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원 절약과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가 공정한 소비와 생물 다양성 보호에 동참할 때, 우리는 그 과수원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 없는 안식처는 하느님만이 주시는 은총이지만, 그 은총을 맞이할 땅은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놓인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하느님의 영이 그것을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씨앗을 심고, 기도하며, 돌보고, 나누며 살아간다면,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정의는 평화를 열매로 맺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평화, 그 성과는 평온과 신뢰”(이사 32,17)입니다. 이 정의는 사회 정의와 환경 정의 모두를 포함하며, 이는 기후 불평등 해소와도 직결됩니다. 인간의 환경 파괴로 인해 고통받는 가난한 이들과 약한 존재들을 위해 평화와 희망의 씨앗을 이제 우리의 손으로 이 땅에 심읍시다.

## 2025년 창조 시기 강론 자료 2

### “우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서 나와 사랑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내어 줍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대 받는 표적이 되어 목숨까지 내어 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어머니마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심오한 신앙의 신비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은 주는 것, 나 자신을 내어놓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 만물을 우리의 형제로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모두 형제다.’(마태 23,8)라고 하셨고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마르 16,15)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는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 형제들을 착취해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하신 것들의 질서를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시원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고통받는 형제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자연과 피조물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에 우리는 무관심했습니다.

이 질서가 다시 바로잡히려면 그동안 우리가 당연히 누려왔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단번에 모두가 완벽하게 실천하진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작은 실천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그 실천을 지속해 간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매일의 크고 작은 선택들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피조물들과 고통받는 힘없고 가난한 이들 안에 현존하시며 함께 고통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때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 한국 순교자들은 추위와 더위에 대한 표현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씨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은 원래 덥고 겨울은 원래 추웠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후 변화로 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서 매일같이 쾌적함을 추구하는 것은 때로는 욕심일 수

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때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조금 덜 시원하고 겨울에 조금 덜 따뜻하게, 비가 오는 날은 조금 덜 쾌적하게 지내며, 우리가 쉽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양보하자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소진해 버린다면 우리는 형제인 모든 피조물들의 고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합니다. 사랑하고 돌보고 가꾸지 않으면 파괴되고 멸종되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던진 기후 위기의 부메랑이 돌아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형제들이 제일 먼저, 제일 많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소명을 마치고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날 하느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돈이나, 지위, 명예나 업적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고, 또 어느 때는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셈하실 겁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해준 것이 무슨 특별한 칭찬을 받을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가난하고 작은 이들에게 한 행위로 하느님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 의지가 있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은 하느님께서 주신 희망의 표징입니다. 이 선택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보다 나은 내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감사와 기쁨 속에서 모든 피조물과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 2025년 창조 시기 강론 자료 3

### 열매를 꿈꾸며 평화와 희망의 씨앗을 심기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21년 지구의 날을 맞아 “생태적 시선으로 깊이 바라보고 더 크게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이웃과 피조물 안에서 경이로움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태껏 우리는 더 많은 시간 ‘이웃과 피조물’을 대상이나 도구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의 상황이 우리의 탐욕과 이기적 편리함만을 추구함으로써 자초한 일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깊이 않고 편협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의 아름다움과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귀함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함부로 대하고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욕심 사납게 쌓아두기만 하다가 결국 쓰지도 못하고 다 잃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목숨을 되찾아 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마련해 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루카 12,16-21 참조)

몽골에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매서운 몽골의 모진 바람을 견디고 혹독한 겨울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고 연약한 나무를 심었습니다. 우리가 몇 그루씩 심는다고 정말 사막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습니다. 몇 년 전 심었다던 나무는 아직 허리 높이도 못 자랐습니다. 위기는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데 나무의 성장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니 이게 진짜 의미 있는 행동일까 되돌아봅니다. 나무를 심는 손에서 맥이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아마 피상적으로 바라보는데 익숙하고 오직 눈앞의 성과만 계측하는 세상의 평가에 주눅 들어 있나 봅니다. 조금하고 불안한 마음만 앞섭니다.

2025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의 주제는 ‘평화와 희망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기후 재난의 위기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생태적 회개의 구체적인 결심과 함께 지속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조물을 깊고 크게 바라보는 시각, 경이로움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찾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황량한 흙에 심은 작은 나무만 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바람을 키워주시는 분은 하느님입니다. 땅에 나무를 심는 손길과 나무를 살려주고 키워주는 하느님의 생

명령 넘치는 자비가 연결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숲을 희망할 수 있고 넘치는 생명력 안에 계신 하느님의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영이 우리 위에 쏟아져 내려 광야는 과수원이 되고 과수원은 숲으로 여겨지리라. 그리고 광야에 공정이 자리 잡고 과수원에 정의가 머무르리라. 정의의 결과는 평화가 되고 정의의 성과는 영원히 평온과 신뢰가 되리라. 그러면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거처에, 안전한 거주지와 걱정 없는 안식처에 살게 되리라”(이사 32,15-18).

연일 이어지는 기후 재난의 소식에 좌절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세상을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되돌리기 위해 지치지 말고 주저앉지도 말고 ‘평화와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 연결된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는 배려, 탐욕을 내려놓음으로써 함께 공존함을 선택함으로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은 우리의 기꺼운 의무입니다. 우리 희망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노력을 봉헌합시다.

## 2025년 창조 시기 강론 자료 4

### “참된 인본주의와 기도”

“우리는 다시 한번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는 기술을 제한하고 그 방향을 바꾸어 기술이 다른 형태의 발전, 곧 좀 더 건전하고 인간적이고 사회적이며 통합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술 지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일이 실제로 가끔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군소 생산자들이 오염을 줄이는 생산 방식을 채택하여 소비 지상주의를 지양하는 삶과 여유와 공동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기술이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우선 목표로 삼아, 그들이 더 존엄하게 덜 고통받으며 살아가도록 돕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이를 바라보려는 의지가 모든 대상을 객관화하려는 힘을 극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움과 그것을 바라보는 이에게는 일종의 구원이 됩니다. 새로운 종합을 요청하는 참된 인류애는 마치 달린 문의 아래 틈 사이로 스며들어 오는 안개처럼 알게 모르게 기술 문화 한가운데 자리 잡는 듯합니다. 참된 인류애의 굳건한 저항으로 싹트는 그 기대는 모든 어려움에도 영원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찬미 받으소서」112항.)

‘참된 인류애’는 모든 것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질문을 멈추게 될 때 인간은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 줄 대체재가 점차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은 대체재를 생각 없이 사용하는 데서는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멈추어 ‘삶의 깊이를 되찾는 일’은 아마도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요청되는 일일 것입니다.

20세기 가톨릭의 신학자 중 한 분인 독일의 칼 라너(1904년-1984년) 신부님은 1924년 월간지인 ‘등대’를 통하여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가?’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너는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땅의 것들에 매달리게 된다. 땅의 것들처럼 작아지고 그것처럼 좁아지고, 그것에 짓눌려 결국 그것에게 팔려 버리고 말지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게 마냥 내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를 작고 좁게 만드는 일상에서 거리를 둘 수 있다. 그래야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주님이신 그분께 가 닿을 수 있다. 하느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하느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피조물에

게 자기 자신을 전달하시고, 사랑으로 피조물을 감싸 안으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 바로 그때 그분은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현실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신다. 초라한 존재의 허무함으로 가득 찬, 십자가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알량한 자존심과 편협한 자기 중독으로 가득 찬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때가 되면 그 영혼에 빛을 비춰 주신다. 그러면 영혼은 강력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 결코 그치지 않는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드넓고 헌신적이고 순결한 마음, 그렇게 신실한 마음을 원하게 된다”(칼 라너, 「기도」, 12-13쪽).

기후위기 시대 인류에게 요청되는 또 다른 영성은 ‘참된 인류애’일 것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질문을 멈추게 될 때 우리는 또 다른 파국을 맞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목적과 의미에 대한 되새김질을 하는 통로이자 도구일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더욱 깊이를 더해주고 참된 인류애를 가능하게 할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 2025년 창조 시기 강론 자료 5

### “모든 피조물들이 전하는 메시지”

시편 8편은 하느님께 대한 찬미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장엄하고도 소박하게 찬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능력과 업적을 찬미하는 동시에, 인간의 위대함과 존엄성을 창조주 하느님 안에서 찾고 감사하는 찬양의 시편입니다.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시편 8, 4-7).

시편 8편의 찬미의 정신을 이어,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쓰신 소중한 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 바오로 2세, 《교리교육》 6항 참조). 이 책의 글자는 바로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피조물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회칙 《찬미받으소서》 85항에서 이 가르침을 인용하시며, 가장 장엄한 경관에서부터 가장 작은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계시를 드러내는 ‘경탄과 경외의 끊임없는 원천’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경탄과 경외의 끊임없는 원천’인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힘들지만, 700만에서 2000만 종 사이로, 더 좁히면 1300만에서 1400만 종의 생물들로 가득합니다. 이 중에서 일부 과학자들이나 토론에서 ‘지구상에 꼭 필요한 5가지 생물 종’으로 꼽는 것은 영장류, 박쥐, 벌, 균류, 그리고 플랑크톤입니다.

영장류는 숲에서 과일 등을 따먹고 배설해 열대 및 아열대 우림의 존속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영장류가 없으면 지구의 허파인 숲을 보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영장류를 ‘숲속의 정원사’라고 부릅니다. 지구상에 1400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쥐는 생물들의 수분(受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해충을 잡아먹어 ‘천연 살충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박쥐가 없다면 인류의 식량 중 30%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2만여 종이 있는 벌은 기후변화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개체수가 80%가량 줄어든 곳도 있다고 합니다. 벌의 활동이 없다면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야채도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벌은 인류 식량 생산의 ‘중요한 매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3백만 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균류(Fungi)는 거의 멸종의 염려가

없습니다. 이 균류들이 없다면 지구는 거대한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균류들은 이 세상에 살아 있던 모든 생명체를 분해해서 처음으로 되돌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균류들을 '자연의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약 5,000종에서 많게는 25,000종 이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해양 식물성 플랑크톤만 하더라도 수십억 해양 생물들의 먹이가 되며, 바다 표면 근처에 서식하는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통해 지구상의 산소 절반을 생산해 냈습니다. 바다 속의 이 플랑크톤 덕분에 우리는 생선을 먹을 수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 많은 생명 종들의 삶의 향연 속에서 우리 인류도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이 수많은 생명과 피조물들이 없다면 우리도 온전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세계 전체를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무한한 자애를 체험하고 경탄할 수 있는 것입니다(「찬미 받으소서」 84항).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의 '경탄과 경외의 끊임없는 원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로마 8,22). 이 탄식과 진통은 인류가 참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쓰신 소중한 책인 피조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인류는 창조주와 맺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희망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 2025년 창조 시기 강론 자료 6

### “보편적 친교-제헌의 힘”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주인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지혜 11, 26). 이것이 한 분이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로서 우리는 모두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고, 일종의 보편 가정,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며 겸손한 존중으로 우리를 채우는 숭고한 친교를 함께 이룬다는 확신의 근거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토양의 사막화를 마치 우리 몸이 병든 것처럼 느끼고 동식물의 멸종을 우리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낍니다<sup>1)</sup>.”(「찬미 받으소서」 89항)

사람에게는 다양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늘의 별, 산, 강, 나무, 짐승, 그리고 주변의 인간 사회를 인식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자기 내면의 세계로 끌어들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저항할 수도 있고, 다시 찾고 그리워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스스로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그리움, 서러움과 사랑, 고요와 흥분이 파도처럼 물결치며 흐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한 힘’은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음을 깨닫고 그 존재를 섬기며 헌신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자기 위에 하느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을 받들며, 하느님을 향해 존경과 찬미와 감사와 봉헌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노 가르디니 신부님은 이 인간 영혼의 심오한 능력을 “제헌의 힘”이라고 부르셨습니다(로마노 가르디니, 《거룩한 표징》, 분도출판사, 1976, pp. 72-73).

이 ‘제헌의 힘’은 보편적 친교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간에게 부여된 하느님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느님께 바치는 제헌이 샘솟는, 고요하고 맑은 샘터와 같습니다. 인간이 이 ‘제헌의 힘’에 의지해 살아갈 때,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으며, 모든 피조물과의 보편적 친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과학원이 발표한 「한반도 109년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

1) 「복음의 기쁨」, 215항

과거 약 100년 전에는 여름이 6월 11일에 시작되어 9월 16일에 끝났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5월 25일에 시작되어 9월 28일까지 여름이 지속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름의 길이가 98일에서 127일로 약 한 달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절기상 경칩 무렵(3월 5일경)에 깨어난다는 개구리는 1월 말에도 등장해 그 시기가 크게 앞당겨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21년 서울의 벚꽃은 3월 24일에 개화하여 평년보다 17일 앞섰으며, 이는 관측 이래 가장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가 기온 상승과 계절 주기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는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이 있습니다. 자연적 원인에는 기후 시스템의 내부 변동, 태양 흑점 수 변화와 화산활동에 따른 태양에너지 유입량 변화, 지구 공전궤도의 주기적 변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의 기후변화는 주로 인위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화석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대기 중 에어로졸의 증가, 토지 이용 및 피복 변화, 산림 파괴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산업화 이후 인류가 편리와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오히려 지구 생태계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한다면, 지금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자연적, 인위적 원인을 직시하며, 특히 인위적 원인에서 비롯된 위기가 인류의 편리와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속되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을 성찰하고, 다른 선택을 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인간 내면 깊숙이 자리한 “제한의 힘”이 있습니다. 로마노 과르디니가 말한 이 힘은,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이신 하느님께 헌신하며 모든 피조물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힘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숭고한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숭고한 친교’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뉴노멀’의 마음가짐입니다. 인간에 대한 온유와 연민, 배려가 없다면 자연의 다른 피조물과도 참된 친교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이 ‘제한의 힘’은 바로 그러한 친교와 조화로운 세상을 가능하게 하는 은총의 선물입니다.